



올림픽 메달의 주역 구자철, 김영권, 김창수, 이성진

선수들에게 대학원 졸업때까지 장학금 지급키로

고건총장은 '2012 런던올림픽'에 출전한 우리대학 출신들이 메달리스트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 8월 16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2012 런던올림픽 축구 동메달 리스트인 구자철, 김영권, 김창수 선수에게 학부 및 대학원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다. 구자철 선수는 금융보험부동산학부(11학번), 김영권 선수는 체육학부(08학번), 김창수 선수는 일반대학원(12학번)에 각각 재학 중이다.

또한 8월 20일에는 본부 접견실에서 2012 런던올림픽 양궁 금메달 리스트인 이성진 선수(금융보험부동산학부/04학번, 전북도청)에게 대학원 진학 시

업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인 박성현 감독(전북도청/사회과학부 졸업)이 함께 했다.

고건 총장은 대한민국과 전주대학교를 빛낸 진정한 슈퍼스타가 바로 여러분이다.며 "많은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는 순간의 기쁨만 느끼고, 그 영광의 순간을 만들기 위해 올림픽 준비기간 동안 선수들이 흘리는 땀과 노력을 잘 모르는데, 심리적, 체력적인 면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다시 한 번 축하한다."고 말했다.

런던올림픽 축구 동메달의 주역 구자철, 김영권, 김창수 선수

를 양성한 우리대학 축구부(감독 정진혁)는 명실상부한 축구 명문으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한편 구자철선수는 올림픽 출전 직전인 지난 6월 대학을 고

건 총장을 예방하고 발전기금 1천만 원 전달했다.

이랜드그룹과 기업우수인재육성(BeStar)과정 개설 이번 학기부터 기업직무훈련, 우수 수료자 직접 채용키로

학생취업처(처장 최흥식)와 이랜드그룹(회장 박성수)은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기업우수인재육성(BeStar)과정"을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BeStar과정은 대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우리대학교의 우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학생취업처(최흥식 처장)가 경영대(학장 민규식)와 문화관광대(학장 송광인)의 협력으로 개발, 이번 학기부터 우리대학교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집중형 비즈니스형 경험프로그램이다.

BeStar 1기 과정은 이랜드 CHOTLF에서 직접 운영하며, 이랜드 계열기업 CEO들의 특강, 1박2일의 합숙훈련과 팀프로젝트 등의 기업직무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우수한 성적의 수료자에게는 이랜드그룹에 채용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되며, 모든 수료자에게 취업과목으로 2학점을 부여하고, CP 15점을 부여된다.

한편 이랜드그룹 채용설명회 및 BeStar 1기생 모집설명회가 9월 12일 오후 4시에 온누리홀에서 전체 학생(전공불문)들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이랜드 그룹은 2012년 자산 규모가 5조원대로 재계서열 50위권에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1분기 매출에서 전년대비 32%가 증가한 5000억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조사한 사회공헌인지도 결과에서 선호도와 진정성 부분 1위를 차지하여 나누기 위해 일한다는 경영이념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문의: 취업지원실 서정상, 220-2978)

하나 되게 하소서

참다운 절대자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 의지하는 신앙을 통해, 절대자와 소통하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생명의 강가에서 대지에 깊게 뿌리내린 나무처럼 주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48년 전 이곳에 세워진 전주대학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귀한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대학이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아름다운 대학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 높은 비상' 을 위해 애쓰는

전주대학교 구성원들을 위로하소서. 전주대학교라는 이름으로 하나 된 저희들에게 사랑의 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 대신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주고받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서로 안이하며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마음으로만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서의 대학 만족도 1위와 기독교 세계관에 의한 인성교육을 통해서 기독교 명문사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역풍에서도 역풍을 이용하여 전진하는 범선처럼 우리 구성원들이 주 안에서 지체처럼 하나가 되어 결집되조차 '더 높은 비상' 을 위한

디딤돌로 만들어가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2학기입니다.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처럼 대학이 학생들을 심고, 교수와 교직원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침의 물을 주었나이다. 소중한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서 이들을 통해 학교와 교직원, 이 지역사회가 큰 기쁨과 보람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연형장로(부총장)



지난 24일 j아트홀에서 가진 전국대학노동조합 전주대학교지부(지부장 박현수) 주최 직원명예퇴직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직원 13명 정년 및 명예퇴직

박현조교수 발전기금 및 장학금 전달

교무처(처장 강홍구)와 총무처(처장 최병선)는 8월 말로 정년을 맞는 교원과 명예퇴직 교직원과 명예교수 명단을 발표했다. 정년을 맞은 교원은 박현조교수(태권도학과), 박종선교수(경영대학원)이며 명예퇴직 교직원은 박하섭교수(경제학과), 박성호교수(기초과학과), 하수경교수(예술체육대학), 편영수교수(교양학부), 권희승과장(국제교육교

류지원실), 이민영실장(인문대학 행정실), 이석필실장(사범대학 행정실), 이춘희실장(취업지원실), 전덕길과장(시설지원실), 정재서과장(시설지원실), 황의면실장(총무지원실) 등 13명이다. 박현조교수는 지난 28일 스타센터 다목적홀에서 가진 정년퇴임식에서 대학발전기금 1,000만원과 체육계열 학생 5명에게 각각 50만원씩 250만원의 장

학금을 전달하였다. 박교수는 “구성원 모두가 대학 캠퍼스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고, 정년퇴임 후에도 대학발전에 지속적인 동참을 기약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한편 박현조교수, 박하섭교수, 편영수교수, 하수경교수는 명예교수로 추대됐다.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단 간담회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이하 탄소인력양성사업단/단장 강홍석 교수)은 지난 27일 전북 테크노파크 등 협력기관과 (주)위텔소재 등 10여개 협력업체를 초청하여 참여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탄소인력양성사업단은 전라북도 지원금을 포함하여 연간 2억여원의 예산으로 23여명의 탄소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취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으로 참여 학생 중 16명에게는 졸업과 동시에 참여기업에 취업이 보장되며, 아울러

3학기 간의 등록금 전액이 장학금으로 지원된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3학기간의 등록금중 60~70%가 지원되며, 졸업 후 탄소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산학협동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고전학연구소 ‘한국학기초자료사업’ 연구과제 선정

홍성덕교수, 근현대 유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열어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학진흥사업 한국학기초자료사업에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분석 및 자료 수집 연구’ 사업(연구책임자 홍성덕 교수, 사진)을 신청하여 최종 선정되어 3년간(1

단계 사업) 6억 8천 여 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연구는 19~20세기 근현대 유학자들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근현대 유학관련 자료를 조사 수집하는 과제로 조사 대상 지역은 호남, 호서지역을 포괄한다.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이 분석이 완료될 경우 근현대 유학자 12,000여 명의 인적정보는 물론 유학자 상호간의 관계

망을 구축하여, 격변기를 살아간 유학자들이 삶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홍성덕 교수는 “총 10년 계획으로 추진되는 본 연구의 1단계 3년 동안에는 전주 출신인 간재 전주선생과 그의 문인들에 대한 분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고 말했다.

(동정)



정호연 교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수상

정호연 교수(생산디자인공학과)가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기술인재 육성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3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개막식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정교수는 16건의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의 성공적 수행과 80여회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의 평가위원 참여 및 최

근 3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17건의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부터 기술경영(MOT)소양강좌를 개설하여 기술경영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인재 육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재운 교수 국가브랜드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이재운 교수(역사문화콘텐츠전공)는 지난 7월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이배용)에서 지역브랜드 전

북대표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2013년까지 활동한다. 지역브랜드 자문위원은 국가-지역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강화와 정보를 공유하고 시, 군 단위 지역브랜드 활성

화를 위한 전략을 검토한다. 또한 지역의 브랜드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 국가 대표 브랜드로 발전하는 것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 아이디어 제안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소기업청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 선정

호남 최대, 13개 과제, 사업비 5억원 선정

창업지원단(단장 이형규)은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2012년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호남지역 최대규모인 13개 과제, 5억원을 지원받아 새로운 창업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사업화지원(시제품제작, 기술정보활동, 마케팅 등)을 통하여 청년벤처기업가로 육성하고자 한다.

창업지원단은 2012년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총 사업비 30억)에 2년연속 전북유일하게 선정,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지원사업(총 사업비 30억)에 선정, 창업맞춤형사업화지원사업(5억원)까지 총 65억원의 창업 관련 사업에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지역을 넘어 국내 최고의 창업선도대학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사범대학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지원사업’ 선정

사범대학(학장 유정숙)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2012년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8월부터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문화가정이 우리 사회 구성원의 10% 이상이 됨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현장 중심의 다문화 이해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 상황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제고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예비 교사들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예비 교사로 교육하겠다.” 고 말했다.

‘2012년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지원사업’은 다문화 학생의 급증에 대비하여 교사 양성단계부터 예비 교사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한국연구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소강춘 교수(사업 담당)은 “다

‘시민인문강좌 지원사업’ 선정

인문종합연구소(소장 김승중)는 지난 27일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12년 시민인문강좌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학을 접할 기회가 적은 계층(군부대, 산업체, 교도소, 빈곤층, 소외계층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지속성 있게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인문학 강좌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존중 및 자신과 주변에 대한 이해 확대를 통한 개인의 삶의 개선 및 사회통합의 기반 마련과 학문성과의 적극적 사회 환원으로 인문학의 사회적 위상 제고 등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특히 인문

또한 전주대 소속 전임교원 15명으로 구성된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사랑과 배려의 인문학’ 연구진은 ‘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의 및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EPIK 신규 원어민 사전 연수’ 320명



우리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하태운)에서 주관하는 ‘2012 8월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신규 원어민 사전연수’를 유치하

여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JJ아트홀 등 교내 일원에서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수에는 미국, 영국 등전 세계 영어권 나라 원어민 강사 302명이 참가했다.

‘동북아관광학회 국제연합학술대회’ 개최

동북아관광학회에서 주최하는 ‘2012 동북아관광학회 국제연합학술대회(위원장 김광근)’가 지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주대의 예술관, 지역혁신관에서 있었다.

몽골, 중국에 홍보사무소 개소

국제교육교류원(원장 안정훈)은 지난 6월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에 유학생 유치 홍보사무소를 개소하였다.

홍 원장과 김영석 실장(국제교육교류지원실)이 몽골에 직접 방문하여 홍보사무소를 설치하고 유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였다.

최근 몽골의 경제발전 영향으로 교육열이 높아지고 해외 유학생 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대비하여 안정

한편 지난 5월 중국 남경에 대학 홍보사무소를 설치한 바 있다.



태권도학과 2명, 국가대표 시범단 최종 선발

여가부장관기, 여성태권도대회 종합 2위

태권도학과(학과장 최광근) 학생들이 각종 선발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박시영(3학년), 김한진 학생(1학년)은 지난 7월 26일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진행된 '상반기 모집 국가대표 시범단'에 20:1의 경쟁률 속에서 최종 선발되었다. 이번 선발전은 올림픽 공원 내 태권도공원장 완공과 함께 태권도 저변확대와 문화 선도를 위해 전국 태권도 전문가들을 대상으

로 개최하였으며, 전주대 시범단 지도교수인 박동영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대표팀의 코치로서 훈련 및 지도를 담당할 계획이다. 태권도학과 시범단은 국가대표 시범공연단 5명, 국기원 대표 시범단 1명,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 3명, 대학 연맹 시범단 1명 등 총 10명이 현재 태권도 중앙 기관을 대표하는 시범단에 속해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전남 강진

군 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 '제 11회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 여성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단체 종합 2위를 하였다. 금메달은 심누리(4학년) 학생 / 73kg급, 은메달은 이선미(3학년) 학생 / 57kg급, 김예나(1학년) 학생 62kg급, 함수민(3학년) 학생 67kg급, 동메달은 이은희(3학년) 학생 / 73kg급 등에서 입상하였다.

산업디자인전공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 성적우수

오준영, 박은혜, 송미선학생

산업디자인전공 오준영 학생(4년), 박은혜 학생(4년), 송미선 학생(4년)은 지식경제부가 주최하는 '제47회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에 4학년 전공 수업시간(담당교수 신익수)에 진행하였던 작품을 출품하

여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오준영 학생은 '펜 미니 프린터' 작품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장상을 수상하였고, 박은혜, 송미선 학생은 'Dr. 기린' 작품으로 입선하였으며, 다가오는 10월 대구 엑스코(예

정)에서 수상작을 전시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는 대한민국 디자인 산업을 이끌어 갈 우수한 신예디자이너 발굴의 장이자, 국내 디자인 산업의 미래 트렌드를 제시하는 국내 최대 규모, 최고 권위의 공모전이다.

2학기 사회봉사활동 신청하자

학생취업처(처장 최흥식)는 2학기 사회봉사활동 희망자를 12일까지 모집한다. 활동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2월 9일까지이며 예수병원 외 29개 기관 혹은 헌혈로 봉사를 할 수 있다. 일반봉사는 32시간 이상, 헌혈봉사는 전혈 2회 또는 성분혈 4회 또는 전혈1회 및 성분혈 2회와 캠페인 8시간 참가

하면 된다. 진행을 맡고 있는 학생지원실(실장 고정수) 관계자는 "신청 후 봉사활동을 중도 포기하게 되면 기관에 큰 불편을 끼치게 된다"며 "반드시 대상 기관, 업무 내용, 봉사활동 요청 일시 확인 후 봉사 활동이 가능하실 경우에만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6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봉사활동 희망학생 100여명을 전북청소소년상담지원센터, 예수병원, 전주영아원, 도서관 등 19개 기관에 파견하여 사회봉사활동을 펼쳤다. (인 터 넷 접수 <http://service.jj.ac.kr/student>), 문의 ☎220-2163

수시 1차 모집 경쟁률 5.09:1

전년대비 42.6% 상승, 2차 모집은 11일까지

입학관리처(처장 이근호)는 지난 24일까지 마감된 수시 1차 모집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수시 1차 모집은 전체 386명 모집에 1,965명이 지원하여 평균경쟁률 5.09:1로 전년대비 42.6%가 상승하였다.

한편 4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수시2차 모집에서는 일반학생 924명, 특기자 80명, 특성화고교출신자 59명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에서 20명 등 총1,083명을 선발한다.

총학생회 국토대장정 45명 참가

총학생회(회장 이형훈)는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9박 10일간 300Km에 이르는 구간(해남에서 김해 봉화마을까지)의 국토대장정을 실시했다. 이번 국토대장정은 진리, 평화, 자유를 모토로 45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장학금 신청하세요~

학생지원실 : 학생회관 2층 226호 ☎ 063-220-2163, 2164

재해장학금

1. 신청기간 : 2012. 9. 11일까지
2. 대 상 : 2012년 7월~8월 중 수해지역 거주 학생을 대상
3. 제출서류 : 시, 군, 읍, 면사무소 발행하는 수해사실확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4. 장 학 금 : 수업료의 20% 지원

선·후배 멘토링 장학금

1. 신청기간 : 2012. 9. 12까지
2. 참여대상 - 멘토(Mentor) : 300명(3, 4학년, 건축학과 5학년)
- 멘티(Mentee) : 1,500~3,000명
3. 장 학 금 :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300,000원 지급



'2012 Catch the World' 시행

학생취업처(처장 최흥식)는 방학동안 아프리카, 유럽, 중동, 오세아니아 등에 59명의 해외탐방대원을 파견했다.

Catch the World는 2004년 도부터 시행하였으며, 해외 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진취

적인 도전정신을 함양하고 전공과 관련된 최신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총 809명이 9억 5천 2백여 만원을 지원받았다.

모집공고

· 국제공인 MOS Master자격증 취득

1. 교육기간 : 2012. 9. 17(월) ~ 11. 2(금) 18:00 ~ 21:00
2. 모집인원 : 160명(선착순)
3. 접수기간 : 2012. 9. 14(금)까지
4. 교육장소 : 스타센터 3층 PC실
5. 수강료 : 200,000원(응시료+강의료+교재비 포함)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중
6. 접수처 및 문의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학생회관 207호(220-2027, 2028)
☆ MOS Master(4과목) 자격증 취득 시 각종 혜택 ☆

· English Cafe Volunteer

1. 운영기간 : 9. 17(월) ~ 12. 7(금)
2. 운영시간 : 9:00 ~ 17:00(월~목), 9:00 ~ 12:00(금)
3. 담당업무 : 영어카페 환경조성, 영어 프로그램 구성과 참여, Cafe 관리 및 청소
4. 모집기간 : 2012. 9. 7(금), 15:00까지
5. 지원방법 : 방문접수(국제교육교류원 스타센터 A209호)
6. 문의사항 : 국제교육교류원 ☎220-2319

· 금연건강 캠퍼스(프로그램) 신청자

1. 신청 기간 : 9월 10일(월)까지 선착순 100명
2. 대상자 통보 : 2012년 9월 10일(월) 개별통지(핸드폰 문자메세지)
3. 교육 및 금연시작일 : 9월 11일(화) 오후 2:00 - 4:30
4. 측정 및 관리 방법 - 매학기 둘째 주에 일산화탄소 측정과 소변검사 및 금연교육 실시 - 금연 패치, 금연검 제공
5. 혜택 : 금연 통사서 SP 지급
6. 문의사항 : 보건진료소 ☎ 220-2169

· 1:1 English Reading Coaching

1. 모집기간 : 2012. 9. 8(토)까지
2. 선발절차 : 영어 인터뷰 면접, 최종 선발 및 교육
3. Coaching 대상 : 어린이영어도서관 등록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4. Coaching 장소 : 스타 센터 내 어린이영어도서관
5. 근무 시간 : 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6. 문의 전화 : 스타센터 어린이영어도서관 ☎ 220-3106, 3107

· 창업동아리 모집

1. 신청자격 : 재학생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지도 교수 필수)
2. 신청기간 : 2012. 9. 14(금) 18:00까지
3. 접수방법 : 방문접수(예술관 1층) 창업지원단
4. 선정 : 창업동아리 12개팀 선정
5. 지원내용 : 창업동아리별 80만원 한도
6. 문의 : 창업지원단 박민정 매니저 ☎ 220-3103, ekftlad@jj.ac.kr

· 종합 직무 인·적성 검사

1. 신청대상 : 3, 4학년 재학생(사전 접수만 가능)
2. 접수기간 : 2012. 9. 28(금)
3. 접수 장소 : 취업지원실(스타센터 235호)
4. 검사 일시 : 2012. 10. 10(수) 16:00
5. 검사결과 특강 : 2012. 10. 24(수) 16:00, 교수연구동 8층(801호)
6. 검사 참가비 : 무료(검사비 및 특강료는 전액 지원)
7. 문의사항 : 취업지원실 ☎ 220-2165/2886

· 개인별 맞춤형 취업 강화 프로그램

1. 신청일시 : 2012년 9월 3일 ~ 11월 2일(2개월)
2. 신청장소 : 스타센터 취업지원실
3. 주요내용 - 취업 교육(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면접 교육)
- 취업 알선(직무분석 및 직무 안내)
4. 참여자 문화상품권 10,000원 증정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캄보디아 땅에 전해진 복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 전주대학교에서의 첫 해외아웃리치 경험

지난 8월 7일부터 14일)까지 7박8일 동안 전주대학교 캄보디아 아웃리치 드림팀(JCOD)이라는 이름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해외단기선교를 다녀옵니다. 전주대학교 안의 서로 다른 학과에서 모인 총 15명의 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한 팀이 되어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저희는 선교를 떠나 한 달 전부터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보고 기도했습니다. 처음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것이 모두 다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전주가 집이 아닌 학생들은 아웃리치 준비를 위해서 이곳에 남아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를 위해 방학동안 기숙사비를 내고 살아야 했고, 회비 또한 대학생에게는 만만치 않은 큰돈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처음 해외에 나가는 것, 건강이나 사고에 대한 걱정과 근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준비했던 저희에게 미리 예비해 놓으셨던 길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회비를 채우고 담담하게 캄보디아 땅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이번 아웃리치는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뼈저리게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모임을 갖고 팀원들과 교제하고 나누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사역을 준비하며 어린 아이들을 위해 선물을 구입하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내 곁에 함께 계셨습니다.

■ 캄보디아 땅에 전해진 복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캄보디아는 국교가 불교입니다.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포교 또는 선교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전과 쿠데타,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300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은 인구의 40%가 15세 미만의 아이들, 60%가 30세 미만의 젊은이들입니다. 저희는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에 있는 “까까웅학교”에 가서 3일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까까웅학교는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집안 사정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을 모아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학교입니다. 그래서 유치부부터 5학년까지 있지만 나이는 제각각입니다. 저희는 태권도, 한글, 악

기 연주, 율동, 미술 등을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이들과 함께 운동회를 하며 뛰놀았습니다. 아이들 얼굴에 그림도 그려주고 함께 웃고 뛰고 장난도 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에 아이들과 그곳의 선생님들을 향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르는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왈각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서 3일밖에 보지 못한 저희들이 사랑한다고 하자 먼저 달려와 사랑한다고 하면서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캄보디아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 캄보디아



땅을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는 “스라에리짜아 마을”에 가서 문화공연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기하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태권도, 부채춤, 워십, 드라마를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지만 그 더운 나라에서 한복을 입고 부채춤도 쳤고, 태권도를 배워보지 못했던 여학생들이 캄보디아 마을 주민들 앞에서 송관을 깨며 격과시범을 보였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연습할 때조차 소심했던 드라마 주인공은 마을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 연기를 했고, 운동만 하던 태권도학도는 음악에 맞춰 워십댄스를 쳤습니다. 열심히 연습했던 것은 그저 사람들에게 잘했다고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고 하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셨기에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저

희를 그곳에 보내주셨고 저희가 경험했던 그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 캄보디아 땅의 청년들과 문화와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다.

우리는 여정중에 시간을 내어 캄보디아의 NPIC라는 대학을 방문하였습니다. 전주대학교와도 교류가 많은 학교입니다. 우리가 학교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 있는 캄보디아 현지 대학생들이 “안녕하세요”라는 한국어로 우리들을 반겨주었습니다. 한국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시기를 이곳에 있는 학생들 중에 한국어로 유학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전주대학교로 유학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많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캄보디아 청년들과 함께 기도회를 가졌던 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하며 한 마음

었습니다. 폴포트는 공산주의를 지탱하기 위해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지금의 캄보디아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캄보디아에 있는 동안 JAM센터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어로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은 까까웅학교에서 통역으로 저희를 도와주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운동도 하고 어눌한 한국어로 함께 이야기기도 했습니다. 다른 언어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곳을 향해 함께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할 때,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였습니다.

■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는 저에게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기도 했고, 주님의 사랑을 몸소 전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김승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합니다. 그 땅에 가는 사람도 선교사지만 보내는 사람도 선교사다. 다른 나라에 가서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저희는 적박한 캄보디아 땅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그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그들과 눈 맞추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해주셔서 다녀왔습니다. 한국도 백 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왔었습니다.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죽은 선교사님도 그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 교회들,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생명도, 내 능력도, 사랑도, 사명도, 희망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님께서 불러주신다면 어디라도 갈 것입니다. 비록 내 조건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신애
(예술치료. 3)

으로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어와 민족이 다른데, 이렇게 하나가 되어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지금도 청년들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도제목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앙코르와트라는 관광명소가 있습니다. 관광지는 여러 사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앙코르왕조가 멸망하고 정글화 되어 다시 발견될 때까지 3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많이 손실되기도 했지만 12세기에 지어진 건물들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거대합니다. 그렇지만 캄보디아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지닌 나라입니다. 킬링필드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죽음의 땅'이란 의미의 킬링필드는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정권 때, 크메르군에 의해 수 천 명이 학살되어 매장된 곳입니다. 그 이후는 폴포트에 의해 2백만명이라는 사람들이 학살되었습니다. 저는 수용소 내에 있는 희생자들의 사진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

특별기고



고 건 총장

글로벌 시대를 앞서 가려면

최근 필자에게는 취미가 하나 더 생겼다. 바로 스마트폰으로 외국대학교 강의를 듣는 것이다. 스마트폰에 강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아 놓고 시간날 때마다 이 강의를 듣는다. 요사이 MIT 대학의 지적재산 강의를 듣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지식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됐다. '조레', '법령' 처럼 우리말로 들어도 잘 모르는 단어들 영어로 나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에는 30초짜리 Rewind 키가 있다. 똑같은 부분을 열번, 백번 반복해 들으면 드디어 언젠가는 들리게 된다. 이렇게 새 지식을 넓혀갈 때마다 잔잔한 기쁨이 있다. 이제 필자는 단 일본도 지루한 시간이 없게 되었다. 스마트폰 덕분에 버스에서나 침대에서나 언제 어디서든 유명대학교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비록 60대이지만 스마트폰 덕분에 지난 3년간 영어 실력이 가장 많이 늘었다. 이 동영상 강의들은 대부분 무료이다. 몇 개월전 그 대학 학생들에게 실제 행해진 강의들이

다. 인터넷에는 이미 1,000개 대학의 50만개 강자가 올라와 있다. MIT, 예일, 버클리, 스탠포드, 옥스퍼드 같은 명문대학 강의들이다. 분야도 과학, 인문, 예술, 사회과학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다. 대학뿐이 아니다. TED는 대학 밖 유명강사들의 강연들을 제공하고 있다. Khan Academy는 초중고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빌 게이트 조차 그의 자녀들을 이와같은 온라인 동영상으로 공부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런 갑부가 왜 가정교사 대신 동영상으로 자녀 교육을 시키는가? 온라인에는

정보가 해가 갈수록 더 빠르게 쌓여가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유익한 정보들이 다 영어로만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콘텐츠 뿐이 아니다. 전세계인들 협업에 의해 수만, 수십만개의 소프트웨어도 (소스코드조차 공개된채) 무료로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어로만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이처럼 유익한 내용들이 유독 영어로만 인터넷에 모여지고 있는가? 그것은 정보공개 운동을 영국이 가장 먼저 시작시켰기 때문이라고 필자

주장하였다. 그래서 영국 왕립 학회는 과학논문을 전세계인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였고 이러한 전통은 19세기 이후로도 강력하게 유지되어 왔다. 이러한 정보공개 정신에 따라 오늘날 위키피디아, 동영상 강의, 공개 소프트웨어 등이 영어 중심으로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모든 지식이 영국에서처럼 공개되었던 것은 아니다. 화약, 종이, 인쇄술 등 많은 중요한 기술은 비밀주의 때문에 전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수백 수천년을 기

이 들었기 때문이다. 21세기는 지식기반 시대이고 글로벌 시대이다. 영어를 못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버릴 수 있다. 영어를 못하면 글로벌 시대에서 고립되고 처지고 조선말 역사가 이 땅에 다시 되풀이될 수 있다. 개인이나 학교나 우리 사회 모두가 영어 교육에 특별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시대가 온 것 같다.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들어오면서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원인이 일본이 영어를 박대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원폭 패전 이후 일본 영토에서 영어를 가급적 가렸다. 라디오나 텔레비전도 영어 방송은 하지 않았다. 할리우드 영화도 모든 말과 자막을 일본어로 바꾸어 내보냈다. 그 결과 일본 시민들은 영어를 보고 들을 기회가 전혀 없게 되었다. 그렇게 30여년을 보낸 후 디지털 혁명이 영어로 불어 닥쳤다. 영어가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왜냐하면 영어는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리나 화학은 수년이면 쫓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영어를 높이는 데에는 한세대 삼십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영어는 이제 더 이상 한 나라만의 언어가 아니다. 영어는 전세계인들이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유일한 미디어가 되었음을 바로 인식하고 우리의 2세대들을 제대로 준비시키자.

영어는 이제 더 이상 한 나라만의 언어가 아니며 전세계인이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유일한 미디어다

때 주제마다 그 주제를 세계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이 강의하기 때문이다.

IT 공간에 올라와 있는 유익한 정보는 대학 강의뿐이 아니다. 전세계 전공인들은 그들의 주옥같은 전공 정보들을 페이스북 올려놓고 공유하고 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전세계인들이 협력하여 2,800만쪽의 세계최고 백과사전을 만들어가고 있다. 아마존에서는 전세계 사람들이 책에 관한 정보들을(서평, 토론 등) 연일 올리고 있다. 구글은 각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용케 정확히 찾아내준다. 실로 인터넷에는 엄청난 양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근대과학은 뉴턴 등을 필두로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자연과학 진리가 속속 발견되자 이러한 지식을 비밀로 부쳐야 하느냐 공개해야 하느냐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다. 자국 산업과 국방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당연히 비밀주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 되었다. 그런데 초창기 영국 왕립학회의 주류를 이루었던 Maxwell, Faraday 등 기독교 신자들은 "자연과학은 신이 우주를 창조하며 심어 놓은 원리를 밝혀내는 분야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신의 속성을 이해시키기 위해 이 정보를 독점하면 안된다" 고

다려야 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오늘날 인터넷 공간에는 엄청난 양의 유익한 정보자원들이 대부분 영어로만 쌓여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필자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해 걱정이 들기 시작하였다. "영어문화권 젊은이들은 이처럼 훌륭한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해 가는데(즉 명문대 강의,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수만 수십만개의 공개소프트웨어 등)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영어에 익숙치 못해 이런 자원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

전주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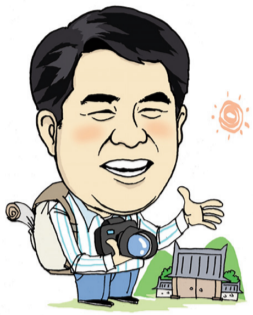
BESTAR

ISLAND

기업 우수인재 육성과정

■ 접수기간 : 9월 3일(월) ~ 13일(목)
■ 설명회 : 9월 12일(수) 16:00, 온누리홀

진행절차				
학생지원 아래 접수절차 참조	직무적성검사 약 40명 선발	교과과정 진행 (기업 우수인재 육성과정) 수료자 이랜드그룹 인턴십 수료증 제공	이랜드 현장실습 교과과정 우수수료자	이랜드 정규직 채용 현장실습 우수수료자
접수절차				
PCMP 사이트 접속 https://pcmp.jj.ac.kr 개인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자기소개서 입력 취업포털(포리오) 자기소개서 제목에 '이랜드' 용으로 작성	자기소개서 출력	취업지원실 방문접수 자기소개서 제출 접수로 1만원(납부해야 완료)	
지원자격				
- 6학기 이상 재학생(5년제는 8학기 이상) - 순학기 평균학점 3.0이상(학점 미달자는 교수추천서 2통 이상 제출시 지원가능) - 전공무관				
기타사항				
- 이랜드 설명회 9월 12(수) 16:00 온누리홀 - 직무적성검사를 통과한 사람만 교과과정 참여 가능(일괄신청) - 참고사항 : 수업시간 금요일 15: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취업정보 게시판 '취업교과목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063)220-2978 혹은 취업정보 게시판의 '취업 Q&A'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홍성덕교수가 들려주는 '전주·전주사람들' 이야기 ⑪

2012, 임진년에 420년 전 역사수호의 정신을 기억하다.

올해는 임진년입니다. '임진년'이 7번 돌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임진년이 되면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420년 전의 기억일 것입니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수없이 우리 백성들의 목숨을 앗아간 7년에 걸친 전쟁, 36년의 일제 강점기와 같은 막대한 피해를 우리나라에게 준 뼈아픈 역사적 경험 때문에 결코 용서할 수도 해줄 수도 없는 상처가 남았던 해입니다.

사실, 전라도의 역사 속 임진왜란은 '若無湖南 是無國家(만일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을 것이다)' 라는 이순신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통칭되지만 사실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라도의 대부분은 일본군의 수중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때문에 정유재란 당시 히데요시의 첫 명령이 전라도를 정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의 기억에 연하여 있는 것은 조선왕조실록의 보존이었습니다. 전쟁을 거치면서 전주사고에 보관 중이던 실록이 유일하게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조선전기 2백년의 역사가 사라져 버릴 수 있었던 위험으로부터 우리 지역 선비들이 그 역사를 지킨 경험 때문에 조선왕조 5백년이 온존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로부터 25대 철종 임금에 이르기까지 472년간의 기록이고, 국보 151호로 지정되었으며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유산입니다. 비밀기록의 편찬으로부터 보존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 관리하고 있는 유일한 기록자산은 이중 보존과 분산보존의 원칙이라는 현대 기록학 이론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즉 조선전기 조선정부는 국가의 중요기록은 단 1부만을 제작하여 보존한 것이 아니라 3부를 더 만들어서 지방에 나누어 보존했던 것입니다. 서울의 춘추관을 비롯해서 전주, 충주, 성주 등 4곳에 똑같은 기록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경기전 내에 있는 전주사고가 바로 조선왕조실록 등의 국가기록을 수장하고 있던 국가 서고였던 것입니다.

전주에 사고가 설치된 것은 1439년(세종 21) '사적분장지책(史籍分藏之策)' 즉 화재 등으로 사라질 수 있는 국가 중요 기록을 각 도에 나누어 보관하자는 사헌부의 건의 때문이었습니다. 사고가 설치된 뒤 1445년(세종 27) 태조·정종·태종실록 필사본이 봉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전주에 사고 건물이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주성 내의 승의사(僧義寺)에 보관했습니다. 그뒤 1464년 가을에 진남루로 실록을 옮겼고 사고의 건물이 완공된 1473년(성종 4)에서야 비로소 국가 서고에 봉안되었습니다. 사고 건립을 주도한 것은 성종 때에 세조와 예종실록이 완성된 뒤 전주에 봉안하기 위해 파견된



전주 경기전에 있는 전주사고

조선왕조실록은 전라감영의 관리들과 선비들이 관민협치(官民協治)로 지켜낸 역사 수호의 산물

동지춘추관사 양성지였습니다. 이후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까지 전주사고에는 역대 국왕의 실록이 차곡 차곡 봉안되어 1592년 당시 총 1,344책이 60권에 담겨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역사수호의 전통은 임진왜란으로 굴복되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에 일본군이 쳐들어 왔다는 소식을 접한 전라감사 이광과 전주부윤 권수, 경기전 참봉 오히길, 유인 등은 대책회의를 열어 실록을 사고 건물(실록각) 아래 묻어 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해 성주사고의 실록이 왜적에게서 발견되었다는 말을 듣고 계획을 바꾸어 실록을 옮기기로 하고 참봉 오히길과 무인 김흥무, 수복 한춘 등이 피난처를 찾아 내장산 은적암으로 정하였습니다. 왜적이 전주부성에 쳐들어 올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전라감영에서는 실록의 피난을 시작하였습니다. 실록을 옮기는 데는 태인의 선비 손홍록과 안의가 가솔들을 데리고 와서 도왔습니다. 실록의 피난은 전라감사 이광의 지휘를 받아 경기전 참봉 오히길이 주도하고 손홍록과 안의 등이 옮겼던 것입니다. ?임계기사?에 의하면 실록은 6월 22일 경기전 전주사고를 떠나 정읍현 내장산 은봉암으로 옮겼다가 14일 비래암으로 다시 이안하였고, 태조어진 역시 7월 1일 용굴암으로 이안하였

다가 9월 28일에 내장산 비래암으로 옮겼습니다.

내장산 일대는 실록과 어진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다. 경기전을 담당하고 있던 오히길, 유인, 구정려 등과 안의, 손홍록, 김흥무 등 3인을 비롯하여 승려 희묵 등 4~5명, 인근 고을의 정재인(秀才人, 잔치관에서 노래와 춤을 추는 사람) 100여 명이 비래암, 용굴암 등에서 실록과 태조의 어진을 지켰습니다. 1592년 6월 22일부터 선조 임금에게 실록을 전하기 위해 내장산을 출발한 이듬해 7월 9일까지 118일간 역사 수호는 이루어진 것이

입니다. 내장산을 떠난 실록은 강화도 해주를 거쳐 1603년 강화도에 보관되었습니다.

전라감영의 관리들과 선비들이 관민협치(官民協治)로 지켜낸 역사 수호의 정신은 1603년부터 1606년까지 전주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을 토대로 조선 후기 실록을 제작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으로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있었던 조선왕조의 역사는 우리 고장 사람들의 죽음을 건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다.

/역사문화콘텐츠전문 교수



수직의 절벽에 있는 용굴암, 당시 사다리를 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했다고 한다.



새 학기를 맞이하는 서현이에게

교수칼럼

최중열 교수 (영미언어문화 전공)

어떻겠니? 영어도 좋고 중국어도 좋지, 아님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라 아랍어나 스페인어에 집중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명심해야 할 필수사항이라고 생각되는 두 가지 점을 이야기 하고 싶구나. 목표를 일단 확정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주 각별한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 지난번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김재범 선수의 말이 생각난다. 그는 말했지, “4년 전에는 죽기 살기로 했어요. 근데 졌어요. 이번에는 죽기로 했어요. 근데 이겼어요. 이게 답입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죽기 살기로 덤벼야지 작심삼일이면 안 된다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다. 하지만 김재범 선수는 죽기 살기로 하면 안 되고 죽기로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죽기 살기로 하면 살기로 하려는 데 틈이 있기 마련이고 그 틈으로 목표는 사라지고 만다고 얘기하고 있다. 서현아! 너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각별한 마음가짐을 해야만 할 것 같구나.

또 하나, 목표추구를 즐길 수 있

어야 한다. 배움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즐기는 것이다. 논어에 보면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보다 못하다.(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라는 글귀가 있다. 배움에 있어 필요한 것은 아는 것, 좋아하는 것, 그리고 즐겨워하는 것이다. 알지 못하고 좋아하지 못하면 즐길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공자님은 즐기는 태도를 앞세워 학문을 익히고 좋아할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다. 즐길 수 있어야만 목표를 끝까지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올림픽경기에서 몇 분간 지속되는 유도라면 혹 모든 걸 잡아내는 죽기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한 학기 아니 다음 학기까지 계속하여 추구해야 할 너의 목표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마음가짐은 죽기이어야 하지만 그 추구과정은 즐거움이 되어야한다.

서현아! 이번 새로운 한 학기가 너에게 있어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추구하는 일이 즐거운 한 학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시작해볼까?

서현아! 태풍과 성폭행 등으로 사회분위기가 어수선하기만 한 요즘이구나. 살다보면 살아오던 걸음을 멈추고 하늘 한 번 올려다보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며 삶의 매듭을 맺어야 할 때가 종종 있지.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새 학기가 학생인 너에게는 하나의 매듭을 맺어야 할 때가 아닐까? 매듭을 맺으려면 다짐 또한 필요하겠구나. 무슨 새로운 다짐을 할 것이며 어떻게 그 다짐을 이루어 나갈거니? 이를 위하여 새 학기를 맞이한 너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하고 싶구나.

우선 한 학기 동안 이루어야 할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미진한 학과목이나 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목표도 있었지만 더욱 더 지구촌화하고 있는 요즘의 세계를 보렴. 내가 특별히 무억에 관심이 많은 걸 생각하면 외국어 하나쯤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는



무엇을 ‘적극적인 생활태도’ 라고 할까

희망칼럼

장영일 (사회복지. 4)

요즘 대학생들은 겉으로 보기에 모두 ‘적극적’ 이고, ‘자기 주도적’ 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겉모습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적극적인 대학생들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끌려 생활하는 수동적인 대학생들을 하고 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대학생들이 많다. 즉 “남이 하지 않으면” 나도 하지 않는다. 그럴싸한 명분을 세워놓고, 적당한 타협을 시도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생활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바로 대학생활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적극적인 대학생활의 주체는 ‘나’ 자신이다. 그러나 수동적인 대학생활의 주체는 ‘남’ 이다. 남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나를 알아야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행도 좋고, 독서도 좋다. 나를 알 수 있는 노력이면 무엇이든 다 좋다. 이것부터 시작하자. 남이 하니까 하는 토익공부나, 자격증 공부는 단박에 때려치우자. 남의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대학생활은 인간의 성장 측면에서 보면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변화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점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

즉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생활태도’ 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세운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철저한 시간관리, 학업, 과외활동, 봉사활동 등이 각 개개인을 활력있고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누군가에게 이끌리는 수동적인 생활태도는 금방 지칠 수밖에 없고, 힘들게 열매를 맺더라도 절대 달지 않다.

마지막으로 우리학교 학생들은 유난히 과묵하다. 특히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더욱이나 과묵하다. 인생을 공부하는 대학생활 때에는 많은 것들을 묻고 생각하고 시도해야 한다. 그래서 부족한 것도 채워가고 실패나 좌절을 통해 자신만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기회를 다지는 시기인 것이다. ‘볼라벤’ 과 ‘텐빈’ 같은 확실한 나만의 인생 경로를 가지고 ‘적극적인 대학생활’ 을 위한 ‘적극적인 생활태도’ 를 갖기를 간절히 바란다.

무더웠지만 ‘꿀’ 같았던 여름방학은 ‘볼라벤’ 처럼 거세게 몰아쳐 지나갔고,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2학기는 ‘텐빈’ 처럼 뒤이어서 빠르게 쫓아왔다. 대학시절의 시간은 특히 이번 태풍처럼 빠르고, 매섭게 지나가더라.

어느덧 2012년 한 해의 4분의 3이 흘러간 9월이다.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는 내 자신을 재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더욱 버라이어티하게 짜야한다. 여름방학동안 우리는 알바와 취업을 위해 의도치 않게(?) 치열한 경쟁을 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보는 계속될 것이다. 즉 경쟁과 생존의 법칙을 학교 및 사회에서 철저하게 학습 중이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더욱더 공고해진 세상 속에서 현실을 부정하며 살 수는 없다. 이미 생존을 위한 경쟁의 게임은 시작되었고, 그 레이스에서 낙오되면 인생 자체가 낙오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게임에 강제로 참여된 셈이다.

사설

Yes, We Can !

4년 전인 2008년 8월 25일?28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 펍시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47세를 갓 넘긴 초선 상원의원인 버락 오바마가 얼굴 가득히 특유의 ‘살인 미소’ 를 지으며 다소 떨리는 어조로 “여러분 덕분에 이 자리에 서서 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 고 선언했다. 1776년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지 232년 만에 주요 정당에서 흑인 대통령 후보가 등극했음을 알리는 순간이었으며 이어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는 미국 역사의 새로운 장이 쓰이는 역사적 시발점이었다. 이 때 그는 단호한 어조로 “Yes, we can change. Yes, we can heal this nation. Yes, we can seize our future.... where we are met with cynicism and doubt and fear and those who tell us that we can't, we will respond with that timeless creed that sums up the spirit of the American people in three simple words -- yes, we can.”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잡을 수 있습니다. 냉소와 의심, 두려움으로 가득 차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간단히 세 단어로 요약한다면 Yes, We Can!)이라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4년 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또 다시 “Yes, We Can!” 이 울려 퍼지고 있다.

이제 우리도 ‘교육만족도 1위, 기독교 명문사학’ 이라는 새로운 비전으로 2012학년도 2학기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비전을 달성할 수 있을 까?’ 라는 냉소와 의심,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구성원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 왜냐하면 우리대학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운영하시는 기독교대학이기 때문이다. 모든 대학 구성원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한다면 우리는 태풍 ‘볼라벤’ 보다도 더 강한 태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위기를 극복하고 더 높은 비상을 할 수 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교육만족도 1위 대학, 기독교 명문 사학, 상위 50위권 대학’ 의 비전을 성취하여 ‘더 높은 비상’ 을 하는 전주대학이 되도록 하자. “Yes, We Can!”

담배와 술, 거짓이 없는 캠퍼스를 만들자

지난 8월 30일 JJ Art Hall에서 진행된 하계교수연수회에서 고건총장은 “우리대학은 기독교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운영하시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학생을 길러내도록 할 것이며 기독교 대학으로서, 전주대 캠퍼스에서 술과 담배와 쓰레기와 거짓말이 사라지도록 하겠다.” 고 하였다. 고건총장의 이러한 선언은, 다소 낮은 감이 있으나, 기독교대학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대학 구성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약시대의 음식의 규례에서 자유롭다. 우리는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골 2:16)고 하심으로 술과 담배와 같은 음식의 규례로부터 자유롭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며, 하나님께서 그 피로 죄값을 치루고 산 것이므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고전 3:16-17, 3:23, 6:19).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항상 거룩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롬13:11-14)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전10:31). 기독교대학인 우리대학 내에서 술과 담배, 쓰레기, 거짓말이 사라지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전주대학 33년 6개월의 회고>

“지난 33년 동안 슬펐던 일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해주



박하섭 교수 (경제학과)

I 나는 정년을 1년 남겨 놓고 지난 8월 31일 전주대학교를 명예퇴직했다. 1979년 3월 6일에 전주대학에 부임하여 현재까지 33년 6개월째 재직하였다. 발령 당시, 1964년 야간대학으로 영생고등학교의 건물을 사용하면서 출발한 영생대학은 1978년 10월에 전주대학으로 그 명칭은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대학의 단독 건물 없이 낮에 고등학교가 사용하는 건물을 밤에 대학이 사용하였다. 당시 학교에서 제공한 연구실은 한 방에 두 사람이 책상 놓고 나면 서로 돌아설 수도 없는 판자로 임시 가리개를 친, 전화기도 없고 그 근처에 화장실도 없는 열악하기 그지없는 곳이었다. 꾸겨진 오

백원짜리 지폐와 천원짜리 지폐로 받은 첫 봉급은 14만 4천원이었다.

1979년 10월 26일은 제3공화국이 막을 내리는 날이었다. 새벽에 비상이 걸려 학교에 갔더니 어느새 학교 주변에 군인들이 진을 치고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10·26 사태는 우리사회에 많은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때 몇 분의 교수와 뜻을 같이 하여 교수 권익을 위한 교수협회를 발족 시켜 실무를 총괄하는 간사를 맡았다. 그러나 교수협회 활동개시 2개월 만에 발발한 5.18 광주 민주 항쟁으로 인해 이 땅의 모든 민주화 투쟁은 원점으로 되돌아가버렸다.

II 1981년 2월에 남노송동 캠퍼스에서 효자동으로 캠퍼스를 이전 하였다. 그해 12월에 이희봉 박사가 제 4대 학장으로 부임하면서 우리대학의 학사·재정·인사 등에 관한 제반업무가 어느 정도 궤도를 갖추게 되었다. 그 덕분에 봉급 날짜도 제대로 지켜지는 대변혁(?)이 일어났다. 그는 학장 부임과 동시에 특성학과로 한문교육과를 선정하고 호남지역에 있는 중요한 자료들을 도서관 직원을 대동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복사를 해오는 열정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 결과 많은 복사본이 우리대학 도서관에 현재까지 보관되고 있다.

1983년 9월 8일 全州大學은 문교부로부터 5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되는 全州大學校 승격을 인가받는다. 그 당시 종합대학의 승격은 구성원 모두가 열망하던 숙원 사업이었다. 그 날 전교생과 교직원들은 한 자리에 모여 자축행사를 벌이고 전주대학교 만세를 부르며 초가을의 맑은 하늘에 에드벌룬을 두둥실 띄웠다. 하지만, 이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불길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캠퍼스 이전과 종합대학 승격을 위한 무리한 투자로 사채를 끌어 쓰면서 영생학원은 재정파탄을 초래하게 된다. 2개월이나 봉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급박한 사태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2개월은 평균치 일뿐이고 실제로는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봉급을 받지 못한 교직원들도 있었다.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을 거치면서 1984년 8월에 학교법인 영생학원은 400여 억원이라는 전북도내 경제사상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사채파동을 남긴 채 관선이사 체제로 들어간다. 나는 이날 강홍모 이사장의 회환어린 눈물을 보았다.

관선이사 체제 하에서 표류하던 영생학원은 1984년 12월 7일 부채 420억원을 끼안는 조건으로 전북지역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新東亞그룹에 인수된다. 그리고 영생학원의 새로운 주인으로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이 취임하게 된다. 비록 전북 출신은 아니지만 반드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어야 한다는 강홍모 이사장의 양도조건을 존중하여 신동아 그룹의 최순영 회장이 인수하였다.

영생학원이 신동아 학원에 인수됨에 따라 최순영 회장이 장로로 있는 할렐루야 교회의 이종윤 담임목사가 새 총장으로 부임하여 ‘지고의 학문(Academic Excellence) 과 영적 성숙(Spiritual Maturity) ‘을 천명하며 「새술은 새부대(마가복음 2:22)」를 강조한다. 당시의 상황은 특히 새것(새 재단, 새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

에 대해서 옛것(옛 재단, 옛 사람) 들은 공포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옛것들이 새 것들에 흡수·동화 되는 경우도 생겼고, 옛것들 끼리 뿔뿔 뿔뿔 뿔뿔 새것들을 타도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종윤 총장은 재임 기간 중 신·구재단의 갈등과 학내소요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임기 3년을 마치고 본직이었던 성직의 길로 돌아갔다. 나는 이종윤 총장 재임 시에 전자계산소장과 경상대학장의 보직을 수행 하였다. 당시 전자계산소에서 사용했던 컴퓨터 용량은 주기억장치가 1GB도 안되는 250MB인 MV8000이었으니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그 때 전자 계산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간단한 학사업무와 급여처리가 전부이었다. 하지만, 학사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입사업무의 처리과정에서 주판의 역할이 사라지고, 신입생이나 재학생의 성적처리과정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졌다. 나는 이종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가는 마지막 해인 1987년 11월에 39세의 나이로 경상대학장의 보직을 임명 받았으니 당시의 학장의 나이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나이가 아니었나 싶다.

III 1993년 1월에는 연세대학교 교수와 청주대학교 총장을 지낸 이종익 박사가 제5대 총장으로 부임한다. 나는 1995년 2월에 교무처장의 직을 명받았다. 이종익 총장은 재단에 관련된 사항이나 재정문제 등은 총무처장에게 맡기고 학사업무에만 신경을 썼다. 당시 교무처는 입학과 연구까지 취급하였으므로 업무가 대단히 방대하였다. 2년 동안 교무처장의 보직을 큰 무리 없이 수행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나에게 위임해 준 이종익 총장의 성품과 뒤에서 적극적으로 나를 뒷받침해 주었던 교무처 직원들 덕분이었다. 또한 이종익 총장은 재임 기간 중 모든 교수연구실에 개인용 PC를 제공함으로써 인트라넷(intra-net)과 인터넷(internet)의 기틀을 세웠으며,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교내에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케 함으로써 대학구성원들의 체력단련과 취미생활 및 대학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다.



교무처장직을 수행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1995년 11월에 나는 청천벽력과 같은 위암 판정을 받는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 건강검진 때 그저 허실 삼아 위암 검사를 해보았을 뿐인데 내 뱃속에서 암 덩어리가 자라고 있었다. 죽음

에 대한 공포와 아내의 그칠 줄 모르는 눈물을 외면하면서 아무리 태연하려고 애를 써도 나의 이성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

다행히 전북대학병원에서의 위암 수술은 성공적이어서 나의 건강은 빠른 속도로 회복 되었다. 그런데 시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1997년 7월에 다시 직장암 판정을 받는다. 이번에는 서울로 가서 수술을 받아야 했다. 서울로 올라가는 자동차 안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신은 인간에게 평균적으로는 공평하다」 라는 소리가 내 눈을 번쩍 뜨게 만든다. 무슨 거대한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한마디가 나에게 큰 위안을 가져다준다. 나는 잠시 죽음의 공포를 잊은 채 「평균적인 공평함」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다. 그때까지 사는 동안 신은 나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세상은 왜 늘 불공평하냐고 불평만 했으니 한 가지(건강)라도 시련을 주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 죽음의 공포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번에도 수술은 성공적이란다. 위암 수술 때에는 25일을 병상에 있었으나 직장암 수술 때에는 15일 만에 퇴원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CT를 찍어보니 그 사이에

일도 즐거웠던 일도 참 많았다. 주신 새로운 정년을 대비하련다

암 덩어리가 온몸에 퍼졌다. 믿을 수 없었지만 전북대학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 회복해 보니 오진이였다. 직장암 수술자극의 흉터가 CT상에서 암덩어리로 보였다. 온몸에 암덩어리가 퍼지지 않았다니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 병원을 원망할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IV 이종익 총장이 두 번에 걸쳐 6년 동안 총장직을 수행한 후 1999년 1월에는 서울대 교수이었던 박성수 박사가 제7대 총장으로 부임한다. 그 때 나는 대학원장의 보직을 하고 있었다. 1999년 2월 말로 대학원장의 임기를 마친 나는 그 해 5월 교수총회에서 교수상조회장으로 피선되었다. 그 후 나는 박성수 총장에게 교수연구동의 연구실에 에어컨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무런 기대도 갖지 않고 그저 한번 해 본 이야기 인데 박성수 총장은 에어컨을 놓아 주겠다고. 나는 반신반의 하였지만 그 약속은 지켜졌다.

2001년 2월의 보직 개편 때 박성수 총장은 나보고 2부 학부장을 하란다. 당시에는 학부제를 하고 있었으므로 학장대신 학부장들로 교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다. 박성수 총장은 우리 대학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C.A.(Campus Advice)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로와 고민거리를 상담케 하였으며 2000년 4월에



신동아학원이 영생학원을 인수할 때 상업은행(현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은 120억 원의 채무 잔금 90억 원을 완전히 상환하였다.

탕감 받은 45억원으로 박성수 총장은 구 농협연수원을 인수하여 제2캠퍼스라 불렀는데, 지금은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구입비용의 10배쯤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성수 총

장은 무주에 농과대학을 개설하려고 무주군과 협상을 하는 등 전주대학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을 시도했으나 구성원들의 반발과 총장 임기 만료로 실현시키지 못했다. 박성수 총장은 교직원들의 급여수준이 낮은 것을 보고 자녀들이 다른 대학에 진학을 하더라도 지원해주는 학자금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V 1999년 2월 10일 신동아학원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온누리교회 담임목사인 하용조 목사가 취임한다. 이로써 온누리교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은 사람들이 전주대학에 등지를 틀게 된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이시영 총장이 온누리교회 시대의 서막을 열고, 2003년 4월에는 40대 후반의 이남식 박사가 제8대 총장으로 부임한다. 그는 취임하기도 전에 일부 교수연구실을 방문하여 의욕에 넘치는 대학 운영 구상을 밝혔는데, 내 연구실에도 들러 총장 임기 동안 500억원쯤 외부자금을 유치하겠다고. 그는 누리사업과 휴닉사업등을 통하여 1000억원 이상을 외부에서 끌어 왔으나 내가 생각했던 500억원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남식 총장이 재임한 8년 5개월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전주대학은 외형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다. 순영관과 스타타워, 스타센터등이 그의 재임 중에 세워졌고, 유관기관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또는 전국을 순회하는 입시홍보를 통해서 우리 대학을 알리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로부터 외부에 알려진 명성만큼 절대적인 호응을 얻지는 못하였다. 특히 재임 말년에는 국제한식조리학교 문제로 교수회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였다. 나는 그의 재임 말년에 부총장으로 발령 받은 후 비로소 국제한식조리학교 문제를 알게 되었다. 내가 보기에는 국제한식조리학교의 학내유치가 전주대학교와 아무런 연관이나 실익도 없

다는 교수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보였다.

VI 나는 전주대학교에 재직하면서 「경제학 강의」(지구문화산, 1984), 「경제학 원론」(형설출판사,1990), 「미시경제학」(형설출판사,1992), 「거시경제학」(전주대 출판부,1996), 「생활인을 위한 교양경제」(전주대 출판부, 1999), 「시장경제의 이해」(형설출판사,2008)등 여섯 권의 저서를 세상에 내 놓았다. 처음에는 원고를 타고하고도 출판사를 찾지 못해 애를 먹기도 했다.

그런데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했던가? 「경제학 강의」 원고를 옆에 놓고 누구에게 사정을 해볼까 망설이던 중 주병오(朱炳五)라는 분을 만나 1984년 2월에 나의 첫 번째 저서인 「경제학 강의」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된다. 주병오 사장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초판 1000부가 2년 만에 매진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경제학 강의」는 그 뒤 4판까지 찍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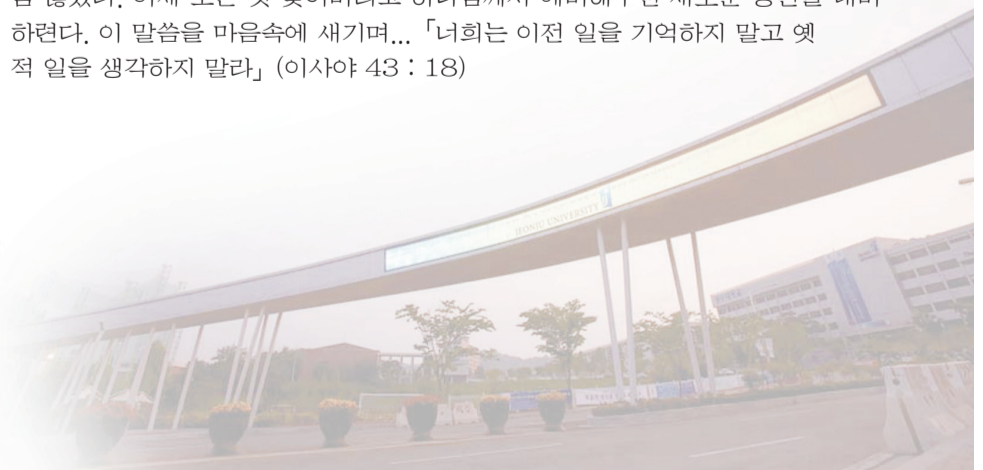



시작은 초라했지만 몇 년이 지나니 여러 출판사에서 원고청탁을 받게 되었고, 드디어 1990

년에는 나의 경제학 체계를 더욱 분명하게 만든 경제학원론이 형설출판사에서 출판된다. 이 「경제학 원론」은 지난해 11판을 마지막으로 폐간되었다. 1996년에 발행한 「거시경제학」이 3판, 2008년에 발행한 「시장경제의 이해」가 3판을 찍었으니 나의 이름으로 출판되어 세상에 깔린 책이 2만 여권은 넘는 것 같다.

나는 전주대학교에 재직하면서 김원태, 이희균, 권영국, 이희봉, 박주황, 이종윤, 김승규, 엄영진, 황갑손, 이종익, 박성수, 이시영, 이남식 등 열 세분의 총장이 학교를 어떻게 경영해 왔는가를 지켜보았다. 이 열 세분중 3년의 임기(이남식 총장 이후는 4년)를 마친 분은 다섯 분뿐이며, 나머지 여덟 분은 재임 1년을 조금 넘는 단명의 총장들이었다. 자의든 타의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총·학장임기를 마치지 못한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로서도 결코 자랑스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나는 정년을 1년 남겨 놓고 이 학교를 명예퇴직한다. 암이라는 무서운 병으로 투병 중일 때 「정년퇴직」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정년퇴직」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하여 「명예퇴직」을 하게 된다. 32세에 이 학교에 와서 33년 6개월을 보내면서 슬펐던 일도 즐거웠던 일도 참 많았다. 이제 모든 것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주신 새로운 정년을 대비하련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이사야 43 : 18)



 [만나고싶은 사람, 듣고싶은 이야기]



〈정년퇴임 고별강의록〉 - 박현조 교수 (태권도학과)

종신인 명예교수로서 임명을 받았다.
 젊음을 바친 전주대학의 발전에
 남은 인생 전부를 바쳐달라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있음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면서 정년을 맞았다.



꽤나 오래전 침잠골에 등지를 뜬 전주대학교, 1980년 말 천잠동산에는 전주 권에서 머나먼 변방의 한 마을이었다. 구두나 흰색 운동화를 신을 수 없는 진흙탕 길이었기에 스쿨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신발에 묻어나는 황토를 매일 닦아내는데 혼쫓이 나기도 한 시기였기에 아련한 추억이 될 수밖에...

노송동의 캠퍼스에서 지금의 천잠동산에 자리를 잡고 진리관과 자유관 2개의 건물을 시작으로 대학 캠퍼스가 조성되기 시작하여 약 30여년에 내·외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전주대학교의 변모된 모습에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종합대학의 면모를 갖추게 되면서 명문 기독교사학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다지기 위한 그동안의 발돋움에 우리 모두는 그간의 수고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전남 곡성중앙초등학교를 거쳐 기계체조 선수가 되기 위해 광주에 소재한 조대부중과 조대부고 조선대학교 문리과대학 체육학과에서 선수생활을 끝으로 기계체조 활성화의 일환으로 광주에서 6명의 지도자들이 전북에 입성하게 된 1973년 전주교에 부임하여 체조팀을 창단하게 되면서 지도자가 되었다. 그 후 원광고등학교(사립)와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국립) 그리고 전북체육고등학교(특수목적고)에서 봉직하였다. 1980년 제 60회 전국체육대회 매스게임 총지휘의 임무를 완수하고 1981년 3월1일자로 전주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다. 이

후 전북대학교(교육학석사)와 원광대학교(이학박사)에서 운동생리학을 전공하여 체육의 이론과 실재를 접목하는데 노력하였다.

체육학문에서의 필수교과목인 체조종목이었기에 큰 어려움 없이 대학에 근무하게 되면서 한결같은 대학교수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된다. 이로 인하여 체육부장(3회), 학생처장(1991)과 학생지원처장(1998)을 거쳐 예체능대학장(1999) 그리고 교육대학원장(2005)의 보직으로 대학 학사행정에 참여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게 되면서 젊음을 불태우는 시기였다고 생각된다. 특히나 대학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학법의 시행으로 2007년 초대 대학평의원회 의장(2007)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따라서 본인으로서의 전주대학교는 3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에 이르는 30년 동안 청·중년기의 시간을 대학에서 젊음이 들과 함께 해왔던 중요한 인생과정이었기에 잊을 수 없는 기억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다.

대학교수 중 학부형 초청 체육학과 실기발표회(1985)와 체육부소속 씨름부 지도교수로서 6연패(1989 공로상)한 성적, 그리고 제41회 전국교수테니스대회 장년부 준우승(2011)이 감격스러운 추억으로 남겼다. 중등학교 교육경험을 토대로 체육교육의 현장에서의 두터운 교우를 유지한 결과 전북체조협회와 전북

체육회에서 연구상을 수상하는 등 왕성한 체육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주요 경력으로는 한국체육학회 감사, 운동재활학회 자문위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자문위원, 한국태권학회 부회장, 그리고 평통자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전북에서는 현재 전북체육회 이사(2회), 전북생활체육회 운영위원, 전북장애인체육회 이사, 전주시 통합체육회 부회장과 함께 전북체조협회 고문직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나 이 고장 전주시민의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해 고안된 생활체조협의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우리가락 생활체조 보급에 역할도 수행중이다.

교단에서 대학생에게 강조해왔던 나름대로의 교육철학에서는 매 강의 전 생활습관 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주문해 왔었다. 대부분의 현대 질병을 생활 습관병으로 불리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수많은 날을 예외 없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10시가 넘도록 대학캠퍼스에서 무언가 열중해 왔었고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해 왔었다고 생각한다. 젊은 날을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 그날 할 일 생각에 기대와 흥분으로 설레기 때문이다. 날이 밝으면 즐겁고 힘차게 일하겠다는 생각에 세상을 희망차게 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하루에 행복을 느껴왔다.

퇴임기념집에서 막내아들이 남긴 가족의 글에서 '누구보다도 아침을 먼저 열고 1분 1초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는 아빠를 들어 정년퇴임을 사회적 낭비다' 라고 얘기하였다. 이처럼 하루를 매

우 의미 있게 계획하고 실천하였다. 따라서 하루 일과를 맡기기 않을 만큼 부산하게 움직이는 생활이 습관화되어있다. 그러기에 가끔이면 주위에서 부지런하다고 칭찬을 한다.

퇴임식에서 대학 총장으로부터 명예교수로 임용장을 받았다. 임기가 종신교수로 되어있는 의미로 보아 종신 대학발전에 동참하라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있음을 가슴속깊이 간직하게 되면서 정년을 맞았다. 따라서 대학의 구성원과 대학 캠퍼스 그리고 솟구치는 젊음의 동산 천잠동산을 한시도 잊지 않기 위한 노력도 다 집한다.

정년 후 남기고 싶은 이야기로는 대학 구성원 모두가 캠퍼스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학생 모두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한다. 정년에 앞서 홍조근정훈장을 받기까지 그동안의 많은 도우심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전주대학교의 자긍심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대학 사랑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데 힘쓰며 대학발전과 함께 대학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건강과 가정의 다복하심이 늘 주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빕니다.

여름 뮤직캠프

120명이 펼친 감사와 감동의 축제



김수현 (음악. 4)

음악학과에서는 해마다 여름 방학을 이용해 음악캠프를 진행해왔다. 올해는 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전공별로 캠프를 진행하기로 했다. 피아노 전공 캠프는 김동진교수의 감독 아래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예술관을 무대로 펼쳐졌다. 피아노과 학생 전원과 대학원생 120여명, 그리고 15분의 교수님들의 열정과 의지로 학교 측의 배려와 동문들의 후원으로 한편의 협주곡을 빚어냈다.

학생들의 주관심사는 공개레슨과 개인레슨이었다.

공개레슨은 피아노과 학생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공개레슨에 참가 신청을 한 학생들이 연주를 하고 그 연주를 토대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고쳐보는

시간이다. 이번 캠프기간에는 함동균, 진수경, 오정선교수님 세분이 매일 공개레슨을 통해 우리에게 자극을 주셨다. 함동균 교수님은 테크니적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를 각 곡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주셨고, 진수경 교수님은 릴렉스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주시고 노래를 만드는방법을, 오정선교수님은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패턴을 해결하는 연습방법과 음악에서 프레이즈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연주할때의 자세등을 우리의 관점에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 공개레슨을 받음으로써 학생들에게 더 유용하고 효과적인 연습방법이 제시되고 더불어 본인들의 연습방법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알아갈 수 있는 기회와 연습 중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해가며 답을 찾아갈 수 있었다. 이 시간엔 학생들 전원이 눈을 떴지 못하고 열성적인 모습으로 공개레슨에 참여했다.

공개레슨이 끝나고 배정받은 교수님과 개인레슨을 하였다. 이번 캠프에서는 내가 배워보지 못한 교수님들께 2회 레슨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 전공교수님과 다른 관점에서 내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매우 좋은 시간이었다.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라는 취지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았다. 다양한 방

법과 새로운 생각을 해보고 다른 친구들의 레슨도 보며 넓은 뜻으로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거 같다.

저녁식사후 저녁에는 늘 연주가 있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연주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 피아니스트 김선옥 교수님은 라벨의 밤의 가스파르와 슈만의 유모레스크를 들었는데, 한음한음을 소중히 하여 만들어가는 음악에 조그만 숨소리도 내기 힘들만큼 빠져들었다. 박영애, 김규원, 오정선, 진수경, 김희아, 함동균 동문 교수님들의 동문 초청 음악회가 있었는데, 바쁜 일정에도 음악을 즐기며 좋은 연주를 들려주었다.

또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피아노 콩쿨이었다. 콩쿨은 참가 신청을 한 학생들에게 모두 기회가 주어졌으며, 동문회에서 콩쿨에 장학금을 후원하여 만들어진 기회라 매우 뜻깊은 기회였다. 각자 자신이 준비한 모든 기량을 뽐내며 보는 사람들에게까지 투지와 열정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다. 학부생과 대학원생과의 차이가 소리의 질과 음악의 완성도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역시 음악은 끝없는 정진의 결과물인가보다. 참가하지 못한 것이 많이 후회가 된다. 이 콩쿨



공개레슨 장면

에 입상한 12명의 연주가 마지막 날 저녁에 리싸이트홀에서 있었다. 콩쿨과는 다르게 연주는 또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콩쿨에 실수를 한 친구가 연주에서는 감동적인 연주를 하기도 하고 콩쿨에서는 자신감 있었던 연주자가 연주에서는 매우 긴장하기도 했다. 역시 연주는 어렵다.

모든 일정의 마지막인 수료식에서는 콩쿨 입상자에게 상장과 동문회 장학금을, 참가자 전원에게는 수료증(Diplom)을 수여했다.

이번 캠프는 우리 모두의 캠프였다. 수동적인 참가가 아니라 학생회와 학과, 교수님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경비를 줄이고 동문회의 후원을 유도하여 아주 저렴한 경비에 정말 좋은 교육을 받은 행사였다. 함께 하니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 같다.

4학년에게는 처음이자 단 한번의 추억이 된 피아노 뮤직캠프....너무나 아쉬웠지만 한편으론 졸업하기전 이렇게 멋지고 실속있는 캠프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게 기쁘다. 하루하루, 시간시간 감사로 충만해 때론 환호성으로, 때론 힘찬 박수로, 때론 숨죽임으로 그 감사과 감격을 표실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학교와 교수님들, 후원해 주신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젊음으로 도전한 국토대장정, 그 아름다움의 여정



송슬기 (건축공학. 1)

1학기 종강즈음 우연히 벽에 부착된 '젊음을 향한 도전! 전주대학교 국토대장정'이라는 포스터에 이끌린 나는 별다른 고민없이 바로 신청을 했다. 평소 대학생활에 있어서 나의 한계를 극복해보고 싶었고, 대한민국의 젊은이라면 한번쯤은 꿈꾸던 국토대장정이기에 더욱 의지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었다. 이번 국토대장정은 20대 젊은 대학생이기에 누릴 수 있었던 최고의 경험을 누렸던 것 같다. 땅끝마을 해남을 시작으로 김해 봉하마을까지 9박 10일 동안 잊지 못할 추억과 동시에 많은 우여곡절을 보낸, 그러나 아름다웠던 여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땅끝마을 해남에서 가진 발대식을 시작으로 45명의 전주대학교 학우들의 행군은 시작되었다. 처음 걷기 시작했을 때 내 조국 내 강산을 내 발로 내딛어 본다는 약간의 낭만적인 생각에 들뜬 나머지 누구보다 당차게 행군을 할 수 있었다.

약 30km를 걸어서 첫 숙영지는 해남 북일초등학교로 운동장 야외 취침. 갑작스런 기상악화로 많은 폭우가 내렸고 처음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2일차, 3일차 계속된 폭염 속에서 체력적으로도 힘이 들었지만 평소 걷기 부족이었던 나는 발가락 고통을 감수해야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발가락 물집은 다른 대원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태어나 처음으로 겪는 근육통을 견디기 힘들었다. 날이 갈수록 환자들이 급증하였다.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고 집생각도 간절했지만 그때마다 조원들과 조장님, 각 팀장님들은 힘과 용기를 주었다. 힘든 여정을 마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 박수를 쳐주고, 웃어주는 사람들이었다. 단체활동을 하면서 모두가 만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에 서로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물론 이에 따른 육체적 불편이나 심적 갈등은 마땅히 감수해야할 숙제였다. 대원들은 점차 서로

가 서로를 의지한만큼 보람과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그 힘은 우리를 걷게 만들었다.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여수항에서 배를 타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남해로 들어갔을 때 맛본 꿀맛같은 휴식의 시간이었다. 소소한 행복들에 일상생활에서는 느끼지 못할 뻔한 감사를 느꼈다. 또 지친 심신을 회복할 수 있었던 사우나, 물놀이를 즐겼던 덕포해수욕장 등...날카롭게 곤두섰던 나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다듬을 수 있었던 계기였다.

마지막 행군지는故노무현 대통령의 생가인 김해 봉하마을. 마을 입구에서부터 노란 바람개비가 우리 대원들을 맞이하여 주었다. 국민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고자, 현실정치가 아니라 삶에서 배우고 느끼고 생각해야 할 정치를 다시금 일깨워 주신 분, 내 마음에 민주주의를 일깨워 주신 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단 한명의 낙오자 없이 성공리에 완주했다. 달팽이처럼 늦게 갈 듯 했던 시간이 흘러 벌써 이렇게 소감문을 쓰고 있다니 놀랍고 신기할 따름이다. 이번 9박 10일동안의 국토대장정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은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이었다. 힘든 시간을 함께 함으로써 서로 부족한 부분



격려차 방문하신 총장님과 함께

을 채워나가고 서로에게 힘이 되었기에 이룬 성과였다. 무엇보다 정도 많이 들고 함께라는 공동체 아래에서 누구하나 빠짐없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소화했기에 큰 문제없이 완주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생이 없었다면 무엇을 추억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일상생활과 같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기대하지 않았고 고생활 각오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전대원 완주'가 더욱 아름답고 멋져 보인다. 함께 걸어온 길만큼 자신의 한계를 넓혔고 새까맣게

탄 얼굴만큼 세상을 보는 시야가 밝고 넓어진 것 같아.

나 스스로를 뒤돌아 볼 수 있으며 가다듬을 수 있었던 시간, 한층 성숙해진 듯하다. 한번 더 도전할 기회가 있다면 경험을 발판으로 스텝으로 지원해보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평생 잊지 못할 젊은 날의 추억이 될 국토대장정, 누구나 도전해볼만한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내년에도 국토대장정이 이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원하시길 바란다.



로고스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겨자씨



유평수 교수
(교육학과)

지난 여름 방학은 참으로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폭염으로 활동하기도 어려웠으며 잠을 설칠 때도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두 번의 태풍이 거센 바람과 물 폭탄 세례를 주고 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불황 가운데 많은 가정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환경에서 진정한 행복이나 평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태풍의 직·간접적인 피해로 한숨짓는 가족과 이웃이 곁에 있습니까? 학비 조달이 어려워 휴학을 생각하거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계십니까? 이런 조건들이 나의 것이라면 원망과 탄식소리 없이 지낼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 절망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분을 믿고 의지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들이 해결되는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며, 주변의 환경이 변

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와 기쁨이 저절로 입술에서 얼굴에서 배어나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다시 일어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시어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비전과 사명을 실현하는 가운데 고통과 외로움, 좌절과 한계상황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강력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키고 멸망하게 만드는 사단의 힘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갈 때 축복된 일들이 나타납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친구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현실의 고난에 좌절하기보다 영원한 천국에 더 소망을 두며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옴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11)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믿음 안에서 인내함으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주안에서 승리하시는 2012학년도 2학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 다 기도가 있다. 하지만 그 동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기도의 동기는 주로 자신의 욕구의 충족,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기에 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의 동기는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 신앙생활 가운데 일반적으로 느끼는 고충이 바로 기도 관련 문제이다. '기도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는 언제나 풀리지 않는 숙제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졸랐다.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이제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 이었다. 그런데, 당시 예수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기도를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시편에 나오는 그 수많은 주옥같은 기도를 외우고 있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을 때 (대하 1:7) 참으로 겸손하게 지혜를 구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부귀와 권세까지 더해 주시도록 한 그 놀라운 솔로몬의 기도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움직인 여호수아나 입다, 야베스의 기도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카디쉬(Kaddish)'와 18번 축복 기도, 즉 '세모네 에스레(Shemone Esre)'도 잘 알고 있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카디쉬와 같은 기도문들을 매일 두세 번씩 낭송하였다.

▼ 기도를 많이 알았고, 아무리 오랜 시간 되풀이 기도하여도 한적한 곳에 가서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돌아오시는 예수님의 해같이 빛나는 얼굴에 묻어나는 평안과 기쁨, 그 놀라운 신비와 감동을 마음 속 깊이 체험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눅 11:1). 아멘.

/ 장선철처장(선교지원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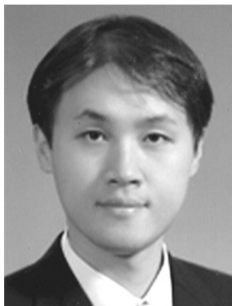


진리의 샘

하나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장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김승수 목사
(대학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지막 유언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지듯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의 이 마지막 중보기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기대는 “하나됨”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로써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에 대한 모

델을 알려 주십니다. 그 모델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냥 우리가 하나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고 기도하십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됨의 모델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하나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하나됨의 그림과 매우 다른 그림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나됨이라고 하면 상대를 내 옆에 두고 함께 손을 잡는 것 정도를 그림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됨이란 상대를 내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상대를 내 옆에 둘 때에는 언제나 그의 문제는 그의 문제일 뿐이고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를 내 속에 품기 시작하면 그의 문제는 더 이상 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허물과 실수가 그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상대 안에 있는 허물과 실수와 부족한 점을 그의 것으로 보지 않고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나의 것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부족함을 비난하기 보다는 오히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다. 이러한 하나됨은 우리 몸의 각 부분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발이 더러워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결코 발이 더럽다고 하여 그 발을 잘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은 내 발이기 때문입니다. 그 발은 남의 발이 아니라 내 발이기 때문에 그 발이 더러워지면 우리는 직접 그 더러운 부분을 손으로 만져 가면서 그 더러운 것을 씻어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볼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그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허물과 죄를 자신의 허물과 죄로 삼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 나오는 별개의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몸된 지체로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2학기 채플, 큰 비전안고 시작!

1학기 '성품'에 이어 '정체성' 주제로

선교지원처(처장 장선철)는 지난 학기 긍정적인 발전을 보였던 채플이 다가온 2학기에도 더욱 큰 비전을 꿈꾸며 시작한다.

6일 오전 11시 대학교회에서 열린 교직원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둘째주 화요일인 11일, 첫 채플을 시작하여 열린채플(대강당), 부흥채플(JJ아트홀), 야간 및 생활관 채플, 인터넷채플이 12주 동안 진행된다.

이번학기에는 지난학기에 부

흥채플(JJ아트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켰던 프로그램들을 부흥채플뿐 아니라 열린채플(대강당)에도 도입하며 1학기 '성품'이라는 주제에 이어 2학기에는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이루어진다.

이번 채플은 살면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자 기획되었으며, 이를 위해 복음적 메시지 전달 뿐 아니라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여 선물도 증정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 각계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영향을 주고 있는 개그우먼, 탤런트, 가수과 같은 유명인을 게스트 강사로 섭외하여 그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과 신앙적 비전을 나누는 깊이 있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선교지원처는 계속해서 채플을 통한 캠퍼스 복음화에 앞장서고, 더 나아가 학생들이 영적인 리더십들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2학기 개강 교직원 감사예배



11)의 설교 말씀이 있었다.

또한 지난 8월 중에 실시된 캠퍼스 아웃리치 선교보고

준영(건축), 임양미교수(가정교육)와, 직원으로는 유기석(학술정보원), 박동균(공과대학), 김정인(학술정보원), 김영진(기획예산실)이다. 인사말을 통해 고건총장은 "하나님의 대학 전주대학이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을 통하여 진정한 기독교 명문사학이 되도록 전 구성원이 일대일 제자양육과정을 수료하고, 대학 캠퍼스 내에 술과 담배가 없는 대학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이어 지난 8월30일(목) 진행된 하계 교수연수 조별활동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졌으며, 1등(배순자교수조)에게는 상금 50만원, 2등(박현정교수조) 30만원, 3등(김준영교수조) 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선교지원처(처장 장선철)는 9월5일(수) 11시 대학교회에서 교직원 200여 명이 모여 2학기 개강 감사예배를 드렸다.

김승수목사(교목) 사회로, 김종훈교수의 대표기도, 경배와 찬양과 찬양팀의 특송에 이어 이신형목사(기독교학부)의 '삶이 주는 시험' (마 4:1-

대회와 일대일 제자양육자 및 동반자 수료식이 있었다. 동반자과정 수료자는 유인규(작업치료), 김지음(외식산업), 정경화(간호), 임양미(가정교육), 김연수(법경찰행정), 윤마병(과학교육), 전효진교수(외식산업)이며, 양육자과정 수료자는 하혜숙(사회과학), 제혜금(경영), 김

온누리교회 주최 'The one' 수련회 개최

지난 8월 8일(수)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이재훈)에서 주최하는 'The One' 집회가 전주대학교에서 열렸다.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주, 울산, 부산, 광주 등지에서 청년들이 모였다. 섭식 37도의 찜통더위에도 예배를 사모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방 민족들을 네게 기업으로

주어 온 세상이 네 소유가 되게 하리라(시 2:9) 올해 'The One' 집회의 말씀처럼 청년 모두는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비전과 사명을 간구했다.

청년들은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찬양하였으며, 찬양으로 뜨거워진 가슴에 말씀을 채웠다. 사회, 열방, 문화, 가정, 비전, 교회, 민족, 청년을 주제로 청년들에게 선포된 말씀은

청년들이 삶의 방향을 설정하기에 충분했다. 3박 4일 동안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돌아가면서 청년들은 시대를 바꾸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기로 다짐하였다.

The One 집회는 매년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진행되고 있으며 집회가 진행 될 때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년들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이다.

JJ-하림 기독교 세계관 강의

하림과 전주대학교가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는 'JJ-하림 기독교 세계관 강의'가 지난 9월 3일(월) 3번째를 맞았다.

이 강연은 다양한 학문의 학자들을 초청하여 각각의 학문을 통해 기독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사회와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번 강연 주제는 '한국 기독교인과 민족 운동'이었으며 이



만열 교수(숙명여대 명예교수, 사진)가 강의했다.

방학중 채플 지원 프로그램 진행



선교지원처(장선철 처장)는 여름방학 기간 중 7월 20일(금), 8월 28일(화) 익산 성일고와 평택 한국관광고에 방문하여 채플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채플지원 프로그램은 기독교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채플을 인도하고 더불어 본교를 흥

보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익산 성일고와 평택 한국관광고를 포함, 올해로 총 5번 진행되었다. 앞으로 2곳의 학교가 채플지원 프로그램을 기다리고 있으며, 예배를 요청하는 고등학교는 어디든지 채플 지원 프로그램으로 찾아갈 예정이다.

생활관 오리엔테이션, 6일 학생회관대강당

학생생활관(관장 장선철)은 스타타워, 스타홀 등 생활관에 입사한 2천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6일 오후 6시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오리엔테이션은 고건총장, 생활관 생활 안내, JJ-Startower 프로그램 안내, 경품 추첨 이벤트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호남 순교역사 발굴 업무 시작

선교지원처(처장 장선철)는 방학 중인 지난 7월부터 호남권 순교역사 발굴 업무를 시작하였다.

기독교 박물관 건립을 위해 시작된 이 일은 2014년 전주대학교 50주년 기념, 회년 사업의 일환이며 순교역사 발굴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로 기독교 박물관이 꾸러질 예정이다.

이 일을 전담업무로 맡아 순교역사 발굴을 시작하기 위해 문학박사 김천식박사가 선교지원실에 임용

되었다. 김박사는 "선교 박물관 건립으로 호남 유일의 기독교 대학의 명분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학생들에게는 순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순교역사를 학문적 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순교역사에 남겨진 교회등을 방문하며 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발굴업무는 9월부터 시작된다.

선교동정 | 장선철처장

- 07.03(수), 군산명화학교 아버지교실
- 07.05(목)~06(금), 고창군 다문화 가정 행복 플러스 워크숍 특강
- 07.06(금), 온누리 교회 OMCA 특강
- 07.10(화) 고창군 다문화가정 특강
- 07.18(수) 김제 교육청 공립 유치원교사 연찬회
- 07.24(화), 고창군 다문화 가정 특강
- 08.03(금), 무주 장로교 청소년 부흥회
- 08.25(토), 서울 사랑의교회 청년부
- 08.30(목), 부안군 제3회 여성아카데미
- 07.09(월) 전북 상담교사 연수 특강
- 07.17(화) 고창군 다문화 가정 세미나
- 07.20(금) 용인교육청 교장연수
- 07.26(목), 생활관 컨퍼런스
- 08.10(금)~08.11(토), 완산도서관 비전캠프
- 08.29(수), 소망교회 수요예배
- 09.02(주일), 전주 연세교회

舌尖上的韩国

——醉心于色香调和的味道

一直说韩食种类贫乏，或许很多韩迷会提出抗议，看《大长今》里那些种类繁多，一碟一碟堆满桌面的食物，难道不丰富吗？的确，除了韩国人平时常吃的酱汤、拌饭等食物之外，还有一种比较正式的饮食——“韩定食”，也就是传统韩式套餐。在我看来，它也是韩食中唯一可以和中餐相比较的食物了。当然，作为皇室的正餐，《大长今》里出现的食物我们很难品尝得到，而平民化的“韩定食”，让平凡我们也可以体验一下贵族般的感受。

烤牛肉，韩国特有的烤牛肉，说是烤，其实说炒加煮更确切一些。汤很多，味道有点甜。

煎饼，把蘑菇、西葫芦、鱼、肉等各种食材沾上鸡蛋液后在锅里煎。这也是韩定食里少不了的部分。

韩定食沿袭了朝鲜时代宫廷菜的传统风味，各式小菜摆满桌面，一般比较清淡，很少油腻，也不太辣。结合了蒸、烤、烫、拌等各种烹调方法，材料、配色、调味花样繁多。由于“韩定食”制作和材料准备都较为复



杂，只能在专门的餐馆吃到，且至少两人起就餐。此类餐厅大多设计成韩国传统房屋的样子，陈设着韩国传统家具，装修很有特色。通常，韩定食的价格较为昂贵，但现在也有简易式的，从十几种到几十种小菜，价格大多为

一人2万——10万韩币之间，可自由选择。虽然经营韩定食的每家餐厅推出的食谱、价格、档次各不相同，但几乎都会有如下品种：用小麦煎饼包肉类、蔬菜等八种小菜组合而成的最最传统的“九折

板”，以及加放肉类、鱼类、蔬菜、蘑菇炖煮的火锅“神仙炉”。先上来的凉菜。菜量都很小，种类很多，这是韩定食的特色。最最平常的生菜色拉、腌黑豆、白菜泡菜、豆腐、炸紫菜、蟹酱等等。摆在中间的“三合”

是里面最昂贵的一道菜。这是韩国特色菜，所谓“三合”，就是将辣白菜、五花肉和生洪鱼包在一起，一口吃进去。

韩国全州的拌饭与韩国冷面齐名，闻名世界。它分为普通的拌饭和石锅拌饭两种。普通的拌饭就是在一个大碗里放上炒熟的蕨菜、豆芽菜、南瓜片、胡萝卜丝、白萝卜丝等蔬菜，再加一个煎荷包蛋，条件好点的会有一些肉。之后放上米饭，加上甜甜的辣椒酱用勺搅拌均匀就可以吃了。石锅拌饭则是把容器换成石锅，先在锅的内部抹上一层香油，再放米饭和菜，在火上烧后石锅“滋滋”作响，底部米饭结成了金黄的锅巴，特别香脆好吃。

香蕉牛奶可谓韩国版感性设计的典型。在韩国，据说凡是喝过必定爱上它，也被称为韩国的饮料多，保鲜期为五天，不含防腐剂，原汁原味。不论小朋友还是大人，都会爱上它的味道的。另外比较不错的盒装草莓牛奶，牛乳味道非常纯正，特别适合冰着喝。

人心情不好的原因：缺少运动

【智慧人生】

一定要记住的4条处世哲理



李泽昱
(国语国文 3 年级)

有关研究认为，缺乏运动是造成情绪消沉的原因之一，而跑

步是有氧运动，除了活动肌肉外，还能加强心、肺和循环系统的功能。同时，跑步分散了注意力，原本因沮丧引起的不适也就被忽略了。研究还表明，沮丧的原因是脑神经中缺乏副肾髓质以外组织分泌出的荷尔蒙。跑步时，该荷尔蒙增加，所以能消除人的沮丧心理。

在影视作品中常见到主人公因心情不好，然后一阵狂奔，观众大多认为这种镜头不真实。然而，有研究表明，现实生活中若真遇上不顺心的事，放开了跑一跑，的确能够消除人的郁闷心理。美国威斯康辛大学的教授兼心理治疗师瑞斯特在运用跑步对

沮丧病人进行治疗后得出结论说：跑步是许多情绪消沉者的合理药方，因为它简便易行，又不会引起副作用，还能强身健体。

传统的看法是，空气清新的早上最适宜锻炼，但新近研究结果表明，锻炼的最佳时机却是黄昏。在晚餐前慢跑能消除一天的压力，还能调节食欲，增加睡眠。其实，只要你有时间，一天中任何时候跑步都能起到较好的作用。运动心理学家建议，在跑步之前最好是先走一走，不要片面地追求速度，也不要给自己计时，你可只为乐趣而跑，充分享受跑步带来的满足感。若跑得太多，不要急忙停下来，而是改用

走的方法，走到呼吸顺畅些再开始慢跑。要注意不要突然停止运动，这会引发心脏不规则跳动。跑步时可选择草地、旷野或林荫道，安详静谧的环境可使你的心和自然交融。同时一定要选好适宜自己的跑鞋，你的脚也会因为柔软的地面和舒适的跑鞋受到很好的保护。

这种跑步最好偶尔有些间断，一般来讲，每跑两天后至少休息一天，或者根据实际情况自己掌握。日子一长，你会感到坏心情离你越来越远，身心状态越来越好，你的生活处处充满了希望和阳光。

1. 世界上唯一可以不劳而获的就是贫穷，唯一可以无中生有的是梦想。
2. 没有哪件事，不动手就可以实现。
3. 人生贵在行动，迟疑不决时，不妨先迈出一小步。
4. 前进不必遗憾，若是美好，叫做精彩；若是糟糕，叫做经历。

人生感悟

亲情计算题

在这世界上，很多东西都可以转换成数字计算，包括时间、金钱、成绩……等等，但是人类的情感能够量化吗？下面这三道题目曾在网络上引发非常多网友的共鸣，相信你们也一定都看过，现在请你们拿起笔来，仔细地计算计算。

- 一、假设你和父母分隔两地，每年你能回去几次，一次几天？
- 二、除掉上班上课，应酬

睡觉，你有多少时间真正和爸妈在一起？

三、中国人的平均寿命是72岁，就算爸妈能活到85岁，这辈子你到还能和爸妈相处多久？王女士，今年30岁，家住安徽，毕业后在长沙工作，父母一直在老家居住。王女士说“一年也就春节回家一次，每次回家，真正在家的时间不超过5天，5天里，大概还有两三天出门跟朋友聚会，应酬。”剩下的时间出去吃饭、睡觉

和上街购物，一年中真正能陪妈妈的时间大概只有24小时左右。

“妈妈今年55岁，如果妈妈长寿活到85岁，在她最孤独的那30年里，我能在她身边的时间不超过720小时，差不多一个月！”王女士说，算出结果后大吃一惊，她哭了，她想将父母接到身边来，但父母说“还是在老家住得舒服”。和父母住在一起的李明明也计算出结果。“大学毕业后我一直住在家，父母白天要上班，真正相

处的时间，就只有那一个小时的晚饭时间。而我每周约有3天在家吃晚饭，也就是说，我每周和妈妈在一起的时间只有3小时，一年就是156小时。妈妈50岁，85减去50等于35年，35乘以156小时等于5460小时，相当于227.5天，也就是7个月零17.5天，这还不包括我以后会出嫁和父母分开居住的情况。”

我们都是在外地的游子，每次出国少说一两年，动辄四五年

的也大有人在，在国内都不见得能有多少时间认真地和父母相处，更何况身在国外，连听到声音都不容易，见个面就更困难了。

这道题不是让我们计算和父母相处的时间长短，而是如何把握和他们相处的每一分每一秒。现在，拿起你的笔算一算你陪了父母多长时间了？想一想今后该如何珍惜和父母在一起的时光。

初文婧 (语言研修 201011756)

Wonderful Country Called South Africa



by Marli van Vuuren

The very first reaction I had about being from South Africa, was after being asked my nationality by som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frica? Teacher, Africa no food!" The second response was by a taxi driver, "Ah, Nam Africa. Football World Cup!" And then, "Very noisy Vuvuzelas!" And the third was by a foreign teacher who asked whether they could please come and visit because they really want to see and touch some elephants. While the first reply is of course a total misconception, the last two comments are right on.

South Africa is known as the Rainbow Nation because of its multi-ethnicity and diversity in cultures and tribes. There is such a wide variety of people in South Africa that we have 11 official languages. English and Zulu are the most widely spoken. Most of the white people speak English and/or Afrikaans and sometimes a black African language, while many black South Africans can speak up to

4 or 5 different languages. South Africa also has a large Coloured, Indian and Chinese population. With a population of 49 million, our Ethnic groups are made of as follows: Black 79.4%; White 9.2 %; Coloured 8.8% and Asian 2.6%.

South Africa is also well known for its wildlife and beautiful scenery. Safari is a big tourist attraction and many tourists come to see the big 5 – the elephant, lion, buffalo, rhino and leopard. But if the bush is not your thing, we have more than 2,500km of coastline, with some of the world's most beautiful beaches. Surfing, diving, snorkelling, whale watching and shark cage diving are very popular activities.

Here are a few interesting facts about South Africa

1. South Africa has three capital cities: Cape Town, Pretoria and Bloemfontein

2. South Africa has 11 official languages

3. South Africa is now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o have hosted the Soccer, Cricket and Rugby World Cup

wetlands and subtropical forests.

6. South Africa has the longest wine route in the world, the R62 wine route.

7. The oldest remains of modern humans were found in South Africa and are well over 160,000 years old.

8. The world's first heart transplant was done in South Africa in 1967 by South African Dr Chris Barnard.

9. About half of the world's gold is produced in South Africa. 10. South Africa has the highest commercial bungee jump in the world (710 feet).

Now, I would like to give you some advice. If you meet a South African teacher in Korea, be very friendly with them. This way, you can make sure to be invited to visit South Africa, which as you can see, is an amazing country. The only problem you might have, is deciding which of the variety of activities, wildlife, landscapes and tribes you'd like to visit. If you come and visit me, I'll definitely take you to meet an



The Land of the Long White Cloud



by Todd Morris

That is the English name of my home, and no I do not live in a typhoon. My home is a place of stunning beauty. It has white capped mountains, deep valleys, untouched forests, crystal clear water and warm inviting beaches. In my home you can shop to you drop, go hiking for hours and not see another person, go to the beach and have it all to yourself, enjoy top quality snow sports, go skydiving and bungee jumping by day and relax in hot pools by night, you can even go surfing in the morning and skiing in the afternoon. You can play sports that you may not have heard of such as rugby, cricket and netball. If you are really lucky you may see an orc, a hobbit or an elf.

Welcome to the land of the Kiwis. Now I am not talking about the fruit, or even the small flightless kiwi bird. That is what I am... a Kiwi. You are Korean, I am Kiwi (please don't try to eat me). The native people call my home Aotearoa? The Land of the Long White Cloud – but you may better know it as New Zealand.

In case you are not sure where

New Zealand is, it is just east of Australia. It is a small country – just 4 million people. For every one Kiwi there are 12 Koreans. However the land size is about three times that of South Korea.

You should come to New Zealand one day. If you do, just remember that the seasons are opposite to Korea. In July and August it is winter in New Zealand – a great time to go skiing in some of the southern hemisphere's best ski resorts. If this sounds interesting then you should visit Queenstown – the adventure capital of the world. If you are an adrenaline junky then this is the place to be. The scenery in this area is some of the most beautiful in the world. Fly into Christchurch the bus over to Queenstown – you will not be disappointed.

Or come for a kiwi Christmas and New Years – but don't forget your swimsuit. Christmas by the pool or at the beach with a BBQ, friends and family in the hot sun... now doesn't that sound great!!!! Mt. Maunganui on New Zealand's east coast is the place to be if you want to party. If you would prefer a more relaxing trip head on up to 90 Mile Beach, right in the top of the country. Here you can go to the beach and maybe not see another person.

If you ever find yourself thinking... where can I go for a vacation? Why not come to The Land of the Long White Cloud, it is only a 12 hour flight plus you may improve your English.

Bible Devotion



Scott Radford

There's a story about a CEO from a famous Insurance Company. He and his wife were driving along a highway when he noticed that their car was low on gas and he needed to pull over and fill up his car. So he got off the highway at the next exit and soon found a rundown gas station with just one gas pump. The gas station was very old and the

pump was out of date. He asked the worker to fill the tank and then went for a little walk around the station to stretch his legs because the drive had been pretty long so far.

As he was returning to the car, he noticed that the attendant and his wife were having a really good conversation and once he came and paid the worker the conversation stopped. As he was getting back into the car, he saw the attendant wave and heard him say, "It was great seeing you again and talking to you."

As they drove out of the station, he asked his wife if she knew the man. She said that she did. They had gone to high school together and had been boyfriend and girlfriend for about a year. "Huh, you used to date him? Wow are you lucky that I came along and married you," bragged the husband. "Why do you say that?" asked the wife.

"Well if you had married him, you'd be the wife of a gas station attendant instead of the wife of a chief executive officer."

"Oh, my dear husband," replied his wife, "If I had married him, he'd be the chief executive officer and you'd be the gas station attendant!"

So, which of the two had the greater influence on the other: the husband, or the wife?

You see, in any relationship, both parties have an influence on the other. After many years of teaching, I have influenced my students in many different ways as well my students have influenced my life so much too. It would be interesting to consider which of us has had a greater pull on the other through the years.

But an even more important question is this: Who has the

greater influence on others around us – you or the world? Also, has the world shaped you and made you what you are today, or have you changed the world around you by your influence on it?

As Christians we are called by God not to be transformed by the world, but to be a transforming influence on the world. In the Sermon on the Mount, Jesus described our calling in this way: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But if the salt loses its saltiness, how can it be made salty again? It is no longer good for anything, except to be thrown out and trampled underfoot.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town built on a hill cannot be hidden. Neither do people light a lamp and put it under a bowl. Instead they put it on its stand, and it gives light to everyone in the house. In the

same way,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that they may see your good deeds and glorify your Father in heaven." (Matthew 5:13-16)

As we start a new semester, let's make a decision today not to let the world pull you away from God. Rather determine to live in such a way that will draw the people around you closer to God. We all have an opportunity to affect each other lives here at Jeonju University and hopefully the influence that I can have is one that reflects Jesus Christ! I am also praying the influence that you have on me as well as your fellow students around you, is one that shows a positive influence of our Lord and Savior. God bless and have a great second semester!

"Who Influences Whom?"

2012 전주대학교 수퍼스타

문학상 공모전

신문방송국에서는 학생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예비문인 발굴을 통하여 문학분야의 수퍼스타를 육성하기 위한 제 2회 전주대학교 수퍼스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수퍼스타를 키우는 곳 —
전주대학교 

공모부문

- 가. 시: 3편 이상 제출
- 나. 소설: 단편 200자 원고지 120장 내외
- 다. 산문: 평론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 에세이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공모주제

자유주제

응모자격

전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응모요령

- 가. 응모작품은 과거에 발표되었거나 현상 공모된 바 없는 순수한 창작이어야 함.
- 나. 반드시 워드프로세서로 원고를 작성해야 함.
- 다. 응모원고 앞 면에 응모자의 성명, 소속(학과,학년),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를 명기하고 겹봉에 「수퍼스타문학상 응모작품」이라고 기재할 것.
- 라. 심사는 관련분야 권위자를 위촉하여 실시하며, 당선작 발표와 함께 그 명단을 공개함.
- 마. 이미 발표된 작품이거나, 표절임이 밝혀질 경우 당선을 취소하고 상금을 회수함.
- 바.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사. 이미 발표된 작품이거나, 표절임이 밝혀질 경우 당선을 취소하고 상금을 회수함.
- 아.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자. 심사는 관련분야 권위자를 위촉하여 실시하며, 당선작 발표와 함께 그 명단을 공개함.
- 차. 이미 발표된 작품이거나, 표절임이 밝혀질 경우 당선을 취소하고 상금을 회수함.
- 카.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상 금

- 가. 시: 당선 70만원 / 가작 30만원
 - 나. 소설: 당선 100만원 / 가작 50만원
 - 다. 산문: 당선 70만원 / 가작 30만원
- * 작품의 수준이 시상권에 미치지 못할 때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당선자 발표 및 시상

- 가. 당선자는 2012년 10월 중 대학신문에 발표하고 개별 통지함.
- 나. 당선작은 대학신문에 게재함
- 다. 시상식은 2012년 11월 중에 실시함.

접수방법 및 접수처

- 가. 접수기간: 2012. 9. 24(월) - 9. 28(금)
- 나. 접수장소: 신문방송국 사무실
560-759 전주시 완산구 천장로 303 전주대학교 신문방송국 (학생회관 3층) ☎ 063-220-2441
-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라. 제출서류
- 원고 사본 2부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학교 신문방송국(☎063-220-2441)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